

# 18세기 南人 文壇의 詩會

— 蔡濟恭·陸萬中을 중심으로 —

백승호\*

樊巖 蔡濟恭과 餘窩 陸萬中은 18세기 후반 남인 문단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다. 18세기 후반 남인 문단에 대해서는 주로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실학파에 연구가 집중되거나 이용휴·이가환 부자 같은 재야의 남인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채제공과 목만중을 중심으로 한 남인 문단은 다산 정약용의 선배 세대이며, 18세기 후반의 남인 문단에서 재야의 이용휴에 대응하는 관각의 문인이 주축이 된 문단이였다.

채제공과 목만중이 당대에 지녔던 위상에 비하여 현재까지 채제공과 목만중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채제공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보면, 신헌 통공과 서학 사건에서 채제공이 담당할 역할에 대한 정치경제적 관점, 「만덕전」을 비롯한 전에 대한 소설로서의 접근, 연행록인 「습忍錄」에 대한 관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1)</sup> 목만중에 대한 문학 논문은 아직 한 편도 나오지

\*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 1) 채제공에 대한 학위논문은 주로 정치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나왔다. 문학 분야에서는 전의 소설적 성향에 주목하여 채제공의 '전'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는데 본격적인 문학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그 목록이다.

趙琬, 「樊巖 蔡濟恭의 西學觀 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金東哲, 「채제공의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 특히 신헌통공발매론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方威容, 「변암 蔡濟恭의 政治思想 研究」,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김진호, 「정조 15년(1791) 장서사건과 채제공」,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미숙, 「蔡濟恭과 李鈺의 女性傳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李承福, 「樊巖 蔡濟恭의 「傳」 研究」,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않았고 교회사 연구에서는 목만중을 1801년 신유박해에서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sup>2)</sup> 문학 연구자들도 서학연구에서 굳어진 목만중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서 목만중을 蔡黨(채제공을 지지하는)과 洪黨(홍낙안을 지지하는 당) 중에 홍당의 선봉에 선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sup>3)</sup> 목만중은 정조 사후에 대사간으로서 천주교도들을 성토하였다는 면 때문에 그가 정조 연간의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문인 집단에서 점했던 위상이 가려진 면이 있다.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시회가 갖는 의의는 채제공이 이른바 탁남의 후손들까지 포용하면서 남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하고 남인이라는 정치 집단이 여러 차례의 환국과 무신란 등 난리 속에서 복인처럼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 집단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 채제공 시사의 구성원들의 선조대에는 청남·탁남으로 의견을 달리했을지라도 남인의 세력이 약해진 채제공 대에 와서는 채제공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남인 명문가의 후손들이 모였다. 한 예로 허목과 의견을 달리했던 영의정 권대운의 고손자 權師彦은 채제공과 절친하여 채제공이 1780년대 정계에서 잠시 몰려났을 때 채제공은 권사언과 함께 권사언의 만어정에서 시회를 열었다. 채제공과 목만중, 오대익, 채홍리 등은 권사언의 소개를 받아 용산의 이씨네 정사에서 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하였다.<sup>4)</sup> 또 다른 예로는 채팽윤과 柳赫然의 조카 柳星三이 서로 협의가 있어 교류가 없었는데 채제공 대에 와서는 유성삼의 손자 柳榮鎭이 자신의 아들 柳河源을 채제공의 풍단시회에 보내어 배우게 하였다.<sup>5)</sup> 후일 유하원은 채제공 문하의 중요한 제자가 되었다.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남인 문인의 주된 시회 장소는 남대문 근처의 채제공의 거처와 서대문 근처의 목만중의 거처였다. 목만중은 채제공의 시회

채용기, 『樊巖漢詩 研究, 舍認錄을 中心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2) 李能和, 『韓國基督教及外交史』, 신한서림영인본, 1968.

3) 심경호 교수는 「화원에서 얻은 단상」(『한문산문의 내면풍경』, 소명)에서 채제공을 언급하면서 목만중을 홍당으로 분류하였다.

4) 〈晩漁亭記〉, 『樊巖先生集』 권34; 〈遊李園記〉, 『樊巖先生集』 권35.

5) 「餽餽錄」, 『輿猶堂集』 잡문 권12.

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채제공이 외직으로 나갔을 때에는 채제공의 시사원들이 목만중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들은 남산 근처를 유람하고 시를 지을 때에는 주로 채제공의 집 근처에서 모였고, 필운대, 세검정 등에서 노닐 때에는 주로 목만중이 장소를 제공했다.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시회는 주로 1760년대 이후에 열렸다. 그 이전 시기에 채제공은 스승인 오광운(1689~1745)의 藥峯詩會, 姜樸(1690~1742)의 梅泉詩會에 문생으로 참여하였고 1750년대에는 외직으로 나가서 시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남인이 숙종, 경종, 영조 초반의 시련을 극복하고 영조 후반, 정조시대에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채제공을 중심으로 어떻게 결속을 다지면서 문학활동을 하는지를 채제공의 시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하려고 한다. 목만중은 주로 서대문 밖에서 거처하면서 채제공의 시회에 빈번히 참여하였고 채제공 부재시 남인 문인들의 시회를 주도하였다. 목만중의 시회에 참여한 문인들은 채제공의 시회에 참여한 문인들과 대부분 일치하고 목만중 본인이 채제공 그룹의 핵심적인 일원임을 생각해 볼 때 목만중의 시회는 채제공 그룹이 필운대, 세검정 등 서대문과 북한산 일대에서 가진 동일한 문인 그룹의 시회로 볼 수 있다. 목만중 이전에도 菊圃 姜樸, 약봉 심단 등 선배 남인 문인들이 서대문 근처에서 시회를 열었다. 목만중의 시회는 이들의 시회를 잇는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채제공의 시회에 목만중의 시회도 보충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I. 吳光運의 정신을 잇는 蔡濟恭의 楓壇詩會

### -1760년대 후반

1758년 채제공은 대사간으로 발탁되었고 藥峯(현재 서울 중구 중림동 일대)으로 이사하였다.<sup>6)</sup> 원래 채제공의 전장은 홍성에 있었고 서울에서는 남대문밖 桃洞에 집을 얻었다. 채제공이 약봉으로 이사한 집은 원래 허백당 성현의 집터였는데 약산 오광운이 살던 곳이었다. 채제공은 1770년 병조판

6) <戊寅秋, 移家藥峯 感念舊事, 作長歌以記之>, 『樊巖先生集』 권9.

서에 제수되어 남대문 안 報恩洞으로 이사갈 때까지 13년간 이곳에서 살았다. 채제공은 약산 오광운의 제자이자 약산 오광운의 형인 吳弼運의 딸을 처로 맞이하였다. 이 결혼은 그의 다른 스승인 국포 강박이 주선하였다.<sup>7)</sup> 채제공이 오광운의 집을 사서 그 집을 가꾸고 그곳에서 시회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오광운의 뒤를 이어 남인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는 약봉의 집의 언덕이 무너질 듯 하자 3층으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단을 만들었다. 그 단에 구불구불 소나무가 서려 있었고 회나무는 하늘까지 높이 솟아 있었으며 단풍나무도 있었다. 이곳이 채제공과 목만중 그룹의 문인들이 시회를 열었던 楓壇이다.

(전략) 성씨 집안에서 200여년간 서로 전해 내려오다가 자손들이 이곳을 지키지 못하여 藥山 吳公에게 돌아갔다. 내가 젊었을 적에 이곳에서 독서와 강학을 하였는데 약산공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손들이 지키지 못하여 나에게 돌아왔다. 천지만물에 항상된 주인이 없는 것이 이와 같다. 언덕이 황폐하여 문득 무너질 듯한 형편이었다. 내가 대충 3단의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단을 만들고 자리에 앉아보았다. 그 곁에 몇백년 된지 모르는 잣나무가 있는데 가지와 잎이 드리워져서 지팡이를 들고 오래된 뿌리가 땅에 드러나 뻗어 있는데 바위를 이기도 하고 석축을 뚫기도 하였다. 기이하게 구불구불하여 앉을 만하다. 소나무가 있어 푸른 갑옷에 붉은 비늘을 하고 있는데, 그 그늘이 못에 가득하다.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절로 허공에서 소리가 난다. 檜나무는 하늘까지 솟아 있어 올려다 볼 수 있지만 가까이 할 수는 없다. 단풍나무는 봄여름 그 잎이 금화를 층층이 쌓아놓은 듯하다가 가을이 되면 빨간 치마가 햇살에 반짝이고 빛나는 햇무리가 멀리서 창과 벽을 쏜다. 이 모든 것이 에워싸고 서 있어 풍단의 빼어난 멋을 돕고 있다.

풍단은 정면으로 남산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파란빛을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듯하다. 하얀 석가퀴가 소나무 사이로 뻗어 둘러쳐 높았다 낮아졌다 구불구불 뻗어 보였다 사라졌다 한다. 승래문은 입을 벌리고 그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수레와 말들 많은 행인들의 모습을 앉아서 헤아릴 수 있다. 도봉산 몇 봉우리가 동쪽 아스라한 가운데 솟아 있다. 북이 북통에서 나와 뾰족한 부분이 솟구치는 것처럼 뻑뻑하다. 이 모두가 풍단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것들로 풍단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매번 하늘빛이 어둑해지면 성 남쪽의 만 채 가옥들에서 지퍼놓은 불이 연이어져 마치 별이 흩어지듯, 바둑판이 펼쳐진 듯하다. 이윽고 흰 달이 등실등실 떠

7) 『변암집』 권3 참조.

오르면 잣나무나 소나무나 회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것이 수백평 뜰 가운데로 그림자를 거꾸로 드리운다. 길고 짧고 성글고 뻣뻣하기도 하여 각기 자신의 형체를 따라 서려 있는 용과 이무기처럼 신발 아래 이리저리 꿈틀거린다. 이것이 풍단에서 가장 기이하고 빼어난 것이요, 풍단에서 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풍단을 사랑한 것이 매우 심하다. 때때로 우리 집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십년 연하라도 그로 하여금 풍단 위에서 시를 읊조리고 부를 짓게 하여 그 재주의 고하를 시험해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팡이를 짚고 어느날이고 풍단에서 버티고 서 있지 않은 날이 없고 객이 또한 그 뒤를 따르지 않은 날이 없다. 마침내 풍단에 기대어 영을 만들었다.

“經史를 말하고 道義를 논하지 않으면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시를 짓지 못하면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바둑을 두지 못하고 거문고를 타지 못하면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산수와 연하를 폄평하지 못하면 그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영을 벽에 써 두니 도연명이 “내가 술에 취하여 잠들려 한다.”는 말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알지 못하겠노라.<sup>8)</sup>

〈藥峯楓壇記〉, 『번암집』 권 34

채제공의 약봉의 집을 1758년에 사두었지만 그가 지방관으로 나가고, 모친상(1762~1764)과 부친상(1765~1767)을 당하여 실제로 사회를 가졌던 것은 1768년이 되어서였다. 풍단의 시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金廷隣(자 德哉) 柳河源(자 伯崙), 兪恒柱(자 秀五) 沈逵(자 雲路), 柳雲翼(자 鵬之) 등이 있다. 이들은 풍단에 올라 두시에 차운해 시를 짓기도 하고 채제공의 종조부인 희암 채평윤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기도 하였다. 채제공의 핵심 제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이정운,<sup>9)</sup> 이익운, 이유경, 이주명 등도 참여하였다.<sup>10)</sup>

- 
- 8) 번역은 이종목, 「번암이 살던곳」(『문헌과 해석』 26, 2003)을 부분 수정하여 전재하였다.
- 9) 이정운은 1795년 충청도 관찰사로 떠났는데 번암이 지어준 송사에서 이정운이 약봉풍단의 시회에서 시를 제일 잘 지었다고 하였다. 〈送五沙李公會按廉湖西〉, 『樊巖先生集』 권18, 1795년작.
- 10) 〈在竹州楸下聞金君廷鄰捷司馬試詩以寄賀戊子〉, 〈楓壇使柳河源拈唐人韻〉, 〈楓壇月夜與諸生拈韻〉, 〈拈唐人韻與諸生同賦〉, 〈兪秀五恒柱來宿登楓壇拈唐人韻〉, 〈同柳河源登楓壇拈杜韻〉, 〈同諸生拈希菴集韻同賦〉 등 『樊巖先生集』 권10에 실린 여러 시들에서 풍단시회의 정황을 알 수 있다.

다산 정약용도 이 시회에 참여했는지 〈權判書宅陪諸公宴集〉 시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하였다. 채제공은 1768년에 강지환으로부터 상중에 시회를 열었다고 탄핵을 받았으니<sup>11)</sup> 이 시회가 성황을 이루어 다른 정파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였음을 짐작하겠다.

채제공의 풍단시회가 갖는 의미는 채제공의 선배 세대에 있었던 청남 탁남의 갈등이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풍단시회에서 해결되고 청남 탁남의 후예가 채제공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柳河源이다. 원래 채제공의 종조부인 채팽윤과 柳赫然의 조카 柳星三이 서로 혐의가 있어 교류가 없었다. 채제공 대에 와서는 유성삼의 손자 柳榮鎭이 자신의 아들 柳河源을 채제공의 풍단시회에 보내어 배우게 하려 하였는데 채제공이 처음에는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채제공의 부친 蔡膺一이 채제공에게 柳河源을 반이들이게 하여 유하원이 채제공의 풍단시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sup>12)</sup> 후일 유하원은 채제공 문하의 중요한 제자가 되었다. 채제공은 유하원으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하고 자신도 〈楓壇使柳河源拈唐人韻〉이라는 작품을 지었으니 유하원이 이 시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채제공은 1770년 도성 안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줄곧 약봉 집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채제공은 퇴근하여 약봉집을 찾아가 여러 사람들과 시를 지었다.<sup>13)</sup> 이시간 해에 큰 장마가 들어 종을 시켜 기와를 수리하게 하고 조카를 시켜 장서를 점검하게 하였다. 이시간지 반년만에 마당은 텅 비고 뿔뿔한 새기털만 날리고 처마에 비가 들어 서책을 적셨다. 벼슬하느라고 약봉 집에 들들 겨를이 없어 높이 자란 檜나무에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1779년에 목만중, 오대익, 유항주 채홍리 등 여러 사람들과 다시 약봉 아래의 시단에 올랐다. 채제공은 그들과 함께 시회를 벌이며 젊었을 때 시회 하던 날을 그리워 하였다. 오광운이 살던 집은 당시 우석모, 우경모 형제가 빌려서 살고 있었다.<sup>14)</sup> 채제공과 함께 약봉 단풍나무 아래서 시를 짓던 흥

11) 『영조실록』 44년 정월조.

12) 『餽餽錄』, 『輿猶堂集』 잡문 권12, 장서각본.

13) 〈藥峯宅示諸君〉, 『樊巖先生集』 권10.

14) 〈悶暑 暫出藥峯舊宅 宅時爲禹錫謨兄弟所借入〉, 『樊巖先生集』 권15, 1779년작.

안의 젊은이들은 10여년 사이에 늙어 버렸다. 채제공은 벼슬하느라고 이리 저리 휩쓸려 다닌 자신의 지난 10여년 사이의 삶을 회고하였다.

## II. 강박의 西泉 梅社를 잇는 목만중의 白社-1770년대

채제공, 이현경 등의 스승인 강박은 일찍이 도성 서쪽 서대문 밖 西泉에 梅社라는 시사를 결성하여 오광운, 이인복, 이중환 등과 시회를 가졌다. 이들 문인들의 다음 세대인 목만중도 거의 평생동안 서대문 밖 芹洞, 美洞에 살면서 시사를 갖고서 채제공의 부재시에 남인들을 결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陸萬中(1727~1810)의 자는 幼選, 호는 餘窩이다. 그의 호 여와는 목만중이 33세(1759)에 별시 문과에 합격하고 외가에서 분가하면서 김포에 얻은 조그마한 집에서 유래하였다. 목만중은 이후 서울에 올라와서도 계속해서 餘窩라는 호를 사용했다. 목만중은 자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餘窩<sup>15)</sup>라고 하였다. 1762년 목만중이 성균관 전적을 거쳐 병조 좌랑으로 있을 때 임오 화변이 일어났다. 목만중은 조재호의 역모 사건에 관련이 있다 하여 함경도 利原으로 유배를 갔다. 목만중은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난 뒤 石井洞(현재 명동성당, 미도파 백화점 일대)에서 잠시 살다가 1765년에 예조 좌랑, 정랑 또 병조 정랑을 거쳐 1765년 여름 충청도 庇仁縣監(현재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제수되었다. 목만중이 비인에 부임할 때 이현경,<sup>16)</sup> 이용휴,<sup>17)</sup> 정범조<sup>18)</sup> 등이 글을 써주었다. 목만중은 이후 4년간 비인에 있었다. 1769년 당시 감사 홍낙순이 비호하는 豪民의 산송문제를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호민이 홍낙순을 밟고 방자하게 굴자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목만중은 이 때부터 10여년간 도성 서쪽 芹洞(돈의문 밖 현재 서대문구 미근동, 화양극장, 미동초등학교 근처)에 은거하였다. 이 시기의 절친했던

15) 〈至明德洞贈主人〉, “餘翁行處餘窩在 分取明公坐臥餘”, 『여와선생집』.

16) 〈送幼選之官庇仁十二首〉, 『良翁集』.

17) 〈送陸幼選萬中之任庇衆〉, 『단만집』.

18) 〈寄劍城守陸幼選序〉, 『해좌집』.

벗은 申光洙, 丁範祖였고 蔡濟恭과도 교류를 가졌다. 그 밖에 이 시기에 교류했던 인물로는 兪恒柱(字 秀五), 李源誠(字 景混), 洪秀輔(字 君擇), 洪翰輔(字 而憲), 韓鼎運(字 士凝), 金光遇(字 伯瞻), 睦祖永(字 景魯), 洪徵漢(字 德水), 韓光傳(汝華) 등이다. 목만중은 이들과 시사를 결성하고 밤낮으로 수창하였다. 목만중은 시사의 친구들과 서부 관아에서 숙직하고 있던 신광수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또 이들은 삼청동에 모여 시회를 가졌다. 惠寔 李用休도 시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시를 지어 보내었다.

유항주가 와서 시사의 제군들과 두보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  
〈兪秀五至與社中諸君拈次杜韻〉

喬木當微雨 큰 나무는 가랑비를 맞고  
明虹受薄暉 무지개 다리는 얇은 햇빛을 받네.  
衆山低戶牖 못 산이 창문아래 나즈막한데  
高枕懶裳衣 베개를 높이 베고 의관을 갖추길 게을리 하네.  
輕鷺窺簷過 날랜 제비는 처마를 엿보고 지나가고  
孤雲掠樹歸 외로운구름은 숲을 스치며 돌아가네.  
昏昏苦炎熱 마음이 답답하게 더위에 고생하니  
夢化鸚鵡飛 꿈속에서 갈매기가 되어 날아가고 싶구나.

중앙절이 되면 시사의 구성원들은 얼큰하게 취해 圓臯에 올라 시를 짓고 백악산에서 내려다보는 도성의 모습을 즐기며 시회를 가졌다.<sup>19)</sup> 이들은 때때로 북한산성에 오르기도 하였다.<sup>20)</sup> 목만중과 일군의 문인들은 목만중, 채홍리, 정범조, 유항주의 집을 돌면서 자주 모임을 가졌다. 이들 모임은 이른바 채제공의 熨社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채제공을 중심으로 문인들이 모이되 채제공이 사신으로 떠나거나 지방관으로 나갈 적에는 睦萬中, 兪恒柱, 李鼎

19) 〈重陽後三日與社中諸君醉登圓臯〉, 『採芹錄』, 『餘窩先生集』 권2, 1772년작.

20) 〈自清潭向北城分黃鳥于飛爲韻得鳥字〉, 『採芹錄』, 『餘窩先生集』 권2, 1773년작. 이보다 앞서 채제공과 목만중은 채홍리, 이동우, 목만중, 심막, 조시겸, 심규, 채우공, 채원공, 채홍리, 이유경과 함께 북한산성에 놀러갔다. 당시 채제공의 집은 남대문 밖 桃洞에 있었고 목만중의 집이 서대문 밖 芹洞에 있었으므로 인왕산이나 북한산 근처를 유람한 후 열린 시회는 목만중의 집에서 열린 적이 많았다.



運이 이들 모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774년 체제공이 평안도 관찰사로 나갔을 적에는 목만중과 시사의 문인들이 밤중에 모여 시를 짓기도 하고 필운대를 유람하기도 하며 번암을 그리워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sup>21)</sup>

1776년 목만중은 도성 서쪽 풀못골(治洞, 현재 중구 순화동)으로 집을 옮겼다. 이곳은 연암 박지원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목만중은 이곳에서 시봉들과 시회를 갖고 이 모임을 白社라고 명명하였다. 백사의 주요 구성원은 목만중이 芹洞에 있을 적과 비슷한데 韓德厚(字 謹之), 이정운, 유향주, 吳大益(字 景三, 체제공의 처남, 오광운의 조카), 李東郁(字 幼文, 이승훈의 부), 정재운(자 기백, 정약용의 부), 채홍리, 홍수보 沈堞(字 汝中) 등이었다. 석북 신광수는 1775년 죽어서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목만중은 신광수에 대해 남다른 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러 번 꿈에서 신광수를 보았다.<sup>22)</sup>

이 시기 목만중은 다른 동료들이 환로에서 바깥 때 야인으로서의 씩씩함을 안고 살았던 것 같다. 절친했던 선배 신광수는 세상을 등졌고, 오대익은 서장관으로 연경에 다녀온 뒤 덕천으로 부임하였고, 유향주는 영암군수로, 정재원은 화순현감으로, 홍수보는 경기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어 후배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이미 40대에 들어선 목만중은 벌써 10여년째 벼슬이 끊겼다. 이 시절에 목만중을 옆에서 지켜주던 벗은 洪檢(字 省棼, 號 菊里)였다. 홍검은 목만중의 집 서쪽에 살면서 매일같이 목만중을 찾아왔다. 崔鴻晉(字 錫章, 목만중의 조카), 許暎(字 公著), 趙鼎玉(字 信伯), 이정운, 趙真相(字 士固) 등이 집으로 찾아와 묵고가곤 하였다.

어느날 조카가 와서 “창의와 탕건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입는 것인데 백부께서는 어찌해서 이것을 입으십니까?”하고 물었다. 목만중은 웃으며 “나도 과거에 급제했노라.”하니 조카가 말하기를 “저는 백부께서 新恩을 입어 벼슬을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는 허언이시군요.”하니 이에 목만중은 자신의 마음을 시로 읊으며 자신의 처지를 위안했다.<sup>23)</sup>

21) 〈社會夜賦〉, 〈與社中諸客遊西園〉, 〈秋興寄蔡觀察〉, 「採芹錄」, 『餘窩先生集』 권2, 1774년작.

22) 〈夜夢石北申兄〉, 『餘窩先生集』 권3, 1777년작.

23) 〈阿順曰 登第者 敝衣而宕巾 伯父何用此爲也 余笑曰 吾固登第矣 順曰 吾不見 伯父

十載幽居者 십년동안 은거한 사람을  
 世人誰識之 세상사람들이 누가 알까.  
 有心三不朽 마음에는 삼불후의 마음이 있지만  
 於事百無爲 일에는 한가지도 하지 않네.  
 鞍馬親朋絕 말 탄 친구들도 끊어지고  
 衣巾稚子疑 의관을 어린 애가 의심하네.  
 仰看雲除鶴 우러러 구름 가 학을 보니  
 雙鬢恥籠羈 양 날개로 우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하네.

### III. 남인의 본격적인 관계 진출과 蔡濟恭의 終南社 -1770년대

채제공은 1770년 병조판서에 제수되었다. 채제공의 정치적 약진과 함께 다른 남인 문인들도 1770년대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채제공은 남대문 안 報恩洞(오늘날 롯데 백화점 본점 근처, 남대문로 1가에서 을지로 1가 사이에 걸쳐 있던 곳. 고운담골 또는 美墻洞이라고도 불렀다.)에 집을 마련하였다. 채제공이 도성 안에 집을 구하자 남인들이 도성 안 채제공의 집에 모여서 시를 짓고 활발한 모임을 가졌다. 채제공은 보은동 집에 매사에 힘을 다하라(每事盡善)는 부친 蔡膺一의 유언을 따라 每善堂을 지었다.<sup>24)</sup> 1773년 채제공은 호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이 때 채제공은 약방제조의 일도 겸하였다. 채제공은 영조에게 하루에 세 번 탕약을 올리는 여가에 호조의 일을 맡느라 매우 바빴다. 채제공은 마음에 답답함이 쌓였다. 채제공은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친지들과 시사를 맺었는데 밤낮으로 매일 모일 수는 없었지만 모이면 반드시 시를 지었다고 한다. 채제공은 시를 지으려고 고심하며 마음을 쓰지 않고 많이 짓는 데 힘을 썼다. 종종 한 운으로 수십 수를 짓기도 하였다. 채제공은 첫 닭이 울 때 잠깐 잠이 들었다가 시간이 되면 출근하였다.<sup>25)</sup> 이 시회는 1773년 10월부터 1774년 1월까지 밤마다 열렸다. 시회의 이름은 채제공이나 목만중이나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之新恩與做官 是言虛也 笑而有作), 『餘窩先生集』 권3, 1779년작.

24) 〈每善堂記〉, 『번암선생집』.

25) 「貞元錄」, 『樊巖先生集』 권10.

1796년 채제공이 신지도에 유배간 조카 李柱溟에게 보내는 시에 終南社라고 지난날의 시회를 지칭하는 예가 있어서 종남사로 지칭한다.<sup>26)</sup> 심경호 교수는 이 시기의 시사를 ‘樊里詩社’라고 지칭하였으나<sup>27)</sup> 번리시사는 채제공이 1780년대 정계에서 물러난 뒤 도성밖 明德洞에서 연 시사이다. 명덕동은 현재의 서울시 성북구 번동이므로<sup>28)</sup> 채제공이 1770년대 도성안 남대문 자락에서 연 시회와는 다른 시회이다.

이 시기의 시회는 채제공이 호조판서로 지내면서 바쁜 와중에도 남인 문인을 모아 연 시회로 남인의 세력 규합과 후배 세대 양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시회에 매일 밤 참여한 사람은 처남 吳大益, 兪恒柱, 李鼎運, 蔡友恭 형제, 조카 李儒慶 등이며 고종사촌 李秀逸은 시사에 참여했으나 한달여 만에 다시 禮山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하지 못했다. 그 아들인 李柱溟 형제들도 그러했다. 陸萬中, 沈堞, 姜忱, 柳河源, 沈達 등은 거의 참여하였다. 조카 蔡弘履는 과거 목사로 있었기에 서울로 올라올 때마다 합류하였다. 그 밖에 이 시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趙時謙, 李宗榮, 陸祖洙, 沈景錫, 崔煊, 李秀發, 李東郁, 韓光傳, 尹持昇, 李益運, 李宗燮, 李燦, 禹景謨, 禹錫謨, 이시수 등이다. 丁範祖는 가장 늦게 시골에서 올라와 모임에 합류하였다.

채제공의 외가쪽 재종질이며 문과에 급제한 鄭鴻慶은 『稽古之力』 서문에서 채제공이 죽고난 뒤 채제공의 종남사가 열렸던 每善堂에 찾아갔는데 마치 채제공을 다시 보는 듯하고 그 때로 돌아가 문장수업을 받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채제공의 시사는 후학들의 문장단련에도 공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회에서 지어진 시들은 시축으로 만들어 문인들 사이에 전해졌던 것 같다. 근세의 문인 수당 이남규는 채제공의 고종사촌 이수일의 후손인데 그의 집에 채제공과 다른 남인 문인들이 썼던 정원록의 시축이 전했다. 이남

26) 〈寄贈舊錦伯李公會諫赴康津四首〉, 『樊巖先生集』 권19, 1796년작. 네 편의 시 가운데 세 번째 시가 신지도로 유배간 조카 이주명에게 보낸 시이다.

27)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제31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8, p.179.

28) 『동명연혁고』 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67.

규는 채제공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도 다른 문인들과 종남사 시회의 시들에 차운하고 그 편을 「續貞元錄」이라고 하였다.<sup>29)</sup>

#### IV. 채제공의 정치적 위기와 陸萬中과 蔡濟恭의 樊社 -1780년대

1779년 채제공은 홍국영과 친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明德洞으로 은거하였다. 명덕동은 다른 말로 樊溪라 하는데 현재의 서울시 성북구 번동 일대이다.<sup>30)</sup> 이에 번암 그룹의 문인들은 채제공을 중심으로 모였다. 남대문 밖 吳光運의 집인 吳大益의 정원에서 채제공과 목만중, 유흥주, 이정운, 이동욱 등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시회를 갖기도 하고 남대문 밖 심씨네 정원을 찾아가기도 하고<sup>31)</sup> 필운대 꽃구경<sup>32)</sup>을 하기도 하였다.

채제공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했던 1780년대에는 채제공을 중심으로 시회가 활발히 열렸던 시기이다. 명덕동에 마련한 채제공의 별업은 채제공이 1770년대 후반에 마련해둔 것이었다. 명덕동 별업은 본디 채제공이 젊은 시절 삼척으로 유배갔을 때 친하게 지냈던 전 삼척부사 玉壺 鄭夏彦의 소유였다. 그런데 정하연의 후손이 경영하지 못해 여러번 주인이 바뀌어 결국 채제공의 소유가 되었다.

채제공은 1782년 경에 마포에 임시로 거처했다. 아마도 당시까지는 정계 복귀가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도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마포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채제공은 홍수보 집안의 정자였다가 金生의 소유가 된 霞鷲亭에 살기도 하고 成씨네 정자에 잠시 살기도 하였다. 그가 거처하는 하목정에서 불과 수십 발자국 떨어진 곳에 권대운의 후손인 權師彦(字 仲範)의 정자 晚漁亭이 있어서 자주 그곳에 들렀다. 이러한 채제공을 가족을 제외하고 당시 처음으로 찾아왔던 사람이 목만중이다.<sup>33)</sup> 기존에 목만중이 1780년

29) 『修堂集』 권1.

30) 『동명연혁고』 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 1967.

31) 〈社中諸君遊沈氏故園歸而詩示奉和〉, 『여와선생집』 권3.

32) 〈雲臺記遊寄喬桐洪節度〉, 〈春社日會溪社同賦喜雨二十韻〉, 『여와선생집』 권3.

경부터 채제공을 공격했다는 가설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채제공과 목만중은 권사언의 만어정에 함께 가서 시를 짓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었다. 채제공은 자신들의 시사 구성원들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을 안타까워 하였다.<sup>34)</sup>

채제공이 명덕동으로 들어간 것은 대개 1783년 말 내지 1784년 초이다.<sup>35)</sup> 채제공이 명덕동에 은거하자 목만중은 한식, 중앙절 등 절기마다 채제공의 명덕동으로 찾아갔다.<sup>36)</sup> 채홍리, 오대익, 이정운 등도 함께 했다. 이들은 戀明軒에서 시를 짓고<sup>37)</sup> 臥龍瀑으로 나아가 明德洞 뒤편의 산을 올라갔다 百香樓에서 쉬었다.<sup>38)</sup> 목만중은 명덕동에서 채제공과 함께 〈樊巖宅次香山新蟬韻〉(『餘窩先生集』 권3), 〈幼選公會謹之至 拈香山詠新蟬韻 同賦〉(『樊巖先生集』 권15), 〈復用香山韻〉(『餘窩先生集』), 〈又拈香山韻同賦〉(『樊巖先生集』), 〈季秋既望 樊里主人 携公會出城賞月溪上 與余之偕〉(『餘窩先生集』), 〈九月既望携餘窩五沙李公會入明德山〉(『樊巖先生集』), 〈寒雨行〉(『餘窩先生集』), 〈寒雨行贈睦幼選〉(『樊巖先生集』 권16), 〈少年值歲暮行次樊巖韻〉(『餘窩先生集』), 〈歲暮行〉(『樊巖先生集』), 〈梅花歌寄士述〉(『餘窩先生集』), 〈憶士述梅花戲草長歌寄士述〉(『樊巖先生集』), 〈繡衣行憶李公會〉(『餘窩先生集』), 〈庚申夜賦繡衣行遙寄李公會〉(『樊巖先生集』) 등 여러 작품을 함께 지었다.

1784년 봄 채제공은 목만중과 도성의 명원을 찾아 시회를 열었다. 그는 목만중, 李赫胄(字 汝華), 蔡弘履, 오대익, 이유경, 그리고 자제들과 함께 필운대 근처 六角峯아래 曹氏의 정원에 찾아가 꽃구경을 하고 시회를 열었다.<sup>39)</sup> 며칠 뒤 채제공은 목만중, 채홍리, 오대익 등과 함께 지금의 정동과 서대문 사이에 있는 스승 오광운의 손자 吳璣의 정원에 찾아갔다.<sup>40)</sup> 채제공

33) 〈餘窩至見次軸中懷餘窩韻卻復次〉, 『樊巖先生集』 권16.

34) 〈同士仰得韻寄贈殷栗宰李公會〉, 『樊巖先生集』 권16.

35) 〈遊李園記〉, 『樊巖先生集』 권35.

36) 〈寒食前二日訪蔡尙書樊里別業〉, 『여와선생집』 권3, 〈九月既望携餘窩五沙李公會入明德山〉, 『樊巖先生集』 권15.

37) 〈戀明軒朝起〉, 〈戀明軒夜雨聞禁城鐘漏〉, 『여와선생집』.

38) 〈寒食日雨少止與主人從臥龍瀑徑明德後洞上最高峰〉, 『여와선생집』.

39) 〈重遊曹園記〉, 『樊巖先生集』 권35.

40) 〈遊吳園記〉, 『樊巖先生集』 권35.

은 또 목만중, 채홍리, 오대익 등과 함께 용산에 살고 있던 권사언의 소개로 옛 독서당 터에 자리잡은 이씨네 정원에 찾아가기도 하였다.<sup>41)</sup> 이씨네 정원에 놀러갔다는 며칠 뒤 목만중이 北渚洞에 꽃구경을 다녀와서 채제공에게 이를 자랑하였다. 채제공은 이튿날 목만중을 데리고 이정운, 이익운, 채서공, 채홍선, 채홍원 등과 함께 동대문을 나가 북저동을 찾아갔다.<sup>42)</sup>

채제공은 1784년 가을에 선영이 있는 竹山의 不寐軒에서 지냈다. 채제공은 부친 채응일의 자취가 불매헌에서 부모가 현몽한 것을 계기로 기문을 쓰고 비록 무함을 받아 은퇴했지만 더욱더 면려하여 굽히지 않아 후세에 평가를 받겠다고 다짐하였다.<sup>43)</sup>

목만중은 채제공은 물론 다른 문인들과도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동욱과 남산을 올라가기도 하였고<sup>44)</sup> 韓光傳, 李鼎運과 필운대에 올라 꽃구경을 했으며<sup>45)</sup> 洪檢과 함께 국포 강박의 옛집에 들렀다.<sup>46)</sup> 또 沈遠의 집에 이정운, 李錫夏, 윤필병 등과 모여 시회를 가졌다.<sup>47)</sup> 그리고 여전히 城西의 목만중의 집 근처에 모여 시회를 계속하였다.<sup>48)</sup> 1783년에는 한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일대를 유람하고 陽根의 丁載遠의 집을 찾아갔다.<sup>49)</sup> 목만중은 오대익, 윤필병, 이정운, 정약용과 함께 수종사에도 올랐는데 자세한 사정은 정약용의 〈遊水鐘寺記〉에 자세하다.

1785년 여름 채제공은 양주 道峯山 아래 홍씨의 전장에 우거하였다가 가을에 다시 명덕동으로 옮겼다. 1780년대 채제공은 거처가 일정치 않고 자주 옮겨다녔던 것 같다.<sup>50)</sup> 채제공이 1780년대에 비록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

41) 〈遊李園記〉, 『樊巖先生集』 권35.

42) 〈遊北渚洞記〉, 『樊巖先生集』 권35.

43) 〈夢記〉, 『樊巖先生集』 권35.

44) 〈與幼文步登南麓〉, 『여와선생집』.

45) 〈雨後與韓景善一之李公會 上彌雲臺 三月望日也〉(1780년작) 『여와선생집』.

46) 〈菊台宅夜詠〉, 〈題菊〉, 〈夜返〉, 『여와선생집』.

47) 〈夏夜雨後汝漸宅遇公會〉, 〈聖廟夜至招彝叙同賦〉, 『여와선생집』.

48) 〈西園與社友同遊得鷓字〉(1781년작), 『여와선생집』 권3.

49) 〈與丁器伯韓景善一之同舟至奉恩寺〉, 〈狎鷗亭〉, 〈鶴灘〉, 〈廣津〉, 〈夢烏亭丘墟〉, 〈曳船〉, 〈宿唐汀〉, 〈未到斗江十里 彝仲諸人小舟來迎〉, 『여와선생집』 권3.

50) 〈賜米記〉, 『樊巖先生集』 권35.

만 채제공에 대한 정조의 대우는 각별했던 것 같다. 정조는 채제공에게 쌀, 목면 등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한다.<sup>51)</sup> 훗날의 순조인 세자도 채제공에게 물고기를 내린 적이 있다.<sup>52)</sup> 1786년 봄 채제공은 다시 노량진으로 나왔다. 동년 6월 채제공은 잠시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부임하였지만 곧 물러났다.

## V. 蔡濟恭의 是岸亭과 睦萬中의 棲遲園-1790년대

1788년 반대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sup>53)</sup> 정조가 친필로 채제공을 우의정으로 임명한 이래 채제공은 자신의 의견이 좌절되거나 일시적으로 파직되었을 경우 주로 용산의 是岸亭에 머물렀다. 시안정에서 지은 작품은 1790년 이후에 작품들이 많은데 1791년 진산 사건 이후로 불편해진 목만중과 채제공의 관계 때문인지 목만중이 이곳에서 지은 작품은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시안정을 주로 찾은 사람들은 채제공의 子姪들과 제자들이었다. 權儼, 이정운, 이익운, 최헌중, 유향주, 이유경, 이주명, 채홍원 등이 번암을 모시고 시를 수창하였다. 〈答仁同崔使君獻重書〉<sup>54)</sup>에는 1797년 채제공이 시사의 여러 문인들과 용산의 시안정에 나아가 시를 짓고 이를 시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로 미루어 볼 때 1790년대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의 시회는 용산의 시안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棲遲園은 목만중이 만년을 보낸 곳이다. 문집에 芹洞에서 이사했다는 기록이 없고 서지원의 위치도 도성 서쪽에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만년에 목만중이 자기의 집에 이름을 서지원이라고 붙인 듯하다. 1786년 목만중은 문과 증시에 합격하였다. 목만중은 이후로 품계가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돈녕부도정에 제수되었다. 1793년 병조참의, 1796년 공조참의, 병조참의를 거쳐 1797년 동부승지, 우승지가 되고 품계가 가선대부에 올랐다. 이후 벼슬이

51) 〈賜魚記〉, 〈賜米記〉, 『樊巖先生集』 권35.

52) 〈賜魚記〉, 『樊巖先生集』 권35.

53) 당시 이조판서 오재순이 채제공의 서용을 극력 반대하여 결국 파직되었다. 『정조실록』12년.

54) 〈答仁同崔使君獻重書〉, 『樊巖先生集』 권36.

계속 올라 한성부 우윤, 동지중추부사를 거쳐 1801년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棲遲園은 서대문 밖 개울이 흐르는 곳에 있었다고 하니 지금의 홍제천 근처였을 것이다. 목만중은 이 곳에 漸喜堂이라는 집을 지었다. 집회당은 목만중의 증조부 睦天成(1630~1687, 字 君平, 호 竹波)이 목천성의 오대조 睦詹(1515~1593, 자 思可, 호 時雨堂, 逗日堂)의 逗日堂을 물려받았을 때 그곳의 벽에 제영한 “漸喜交遊絕 幽居不用名”<sup>55)</sup>이라는 두보의 시에서 따온 것이다. 세월이 흘러 글씨가 더러워지고 목판이 부스러지자 목만중의 백부 睦祖悅이 玉洞 李激에게 부탁하여 글씨를 받고 목천성의 원래 글씨는 종손인 睦仁紀의 집에 두었다고 한다. 목만중은 진산 사건과 신유년 사건 이후 세상에 물의를 일으키고 벼들과도 전과 같지 않은 사정 때문인지<sup>56)</sup> 증조부 목천성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려던 뜻을 이어 받아 도연명처럼 은거하겠다는 뜻을 기문으로 보였다.

#### 漸喜堂記 (1795년작)

(전략) 나는 젊었을 적에 교유가 자못 넓었고 가난했지만 얼어죽고 굶어죽을 걱정을 몰랐고, 벼슬했지만 흙탕물에 튀구는 것을 부끄러운 줄 몰랐다. 오직 큰소리치며 쫓아다니는 것만 일로 삼은 지 40년이 되었다. 노년의 헛된 이름은 옛 사람들이 꺼리던 것이요, 편벽된 성품은 못 사람의 비방이 모이는 바라. 뽕나무와 느릅나무는 멀리 비치는 경치가 아니요, 차가운 재에는 불을 지필 수가 없다. 이에 객상에 늘 먼지가 끼고 거처에서 편안히 지내니 증조부께서 벽에다 제하신 뜻과 깊이 계합하는 바가 있어 그것을 취하여 당의 이름을 지었다. 나는 평소애 두시를 읽기를 좋아하였으나 예전에는 이 말이 기뻐할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였다. 아. 얼마나 늦은가. 지금 시대를 우리 증조부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어떠한가. 지금의 객을 우리 증조부의 객과 비교해보면 또한

55) 杜甫의 〈遺意〉에 나오는 구절이다.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歸去來兮 請息交以絕遊”의 구절에서 뜻을 가져온 것으로 은거의 뜻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56) 정약용의 문집을 보면 1801년 이후에 목만중이 대사간으로써 동료들을 성토했던 일과 그로 인해 동료들이 들로 나뉘게 된 상황을 자세하게 적고 있다. 〈貞軒墓誌銘〉, 〈茯菴李基讓墓誌銘〉, 〈鹿菴權哲身墓誌銘〉, 〈梅丈吳錫忠墓誌銘〉, 〈自撰墓誌銘〉, 〈竹帶先生傳〉 등의 글에서 목만중, 홍낙안, 이기경 등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이익운, 이정운, 이가환, 윤필병, 이중화 등 자기 당에 절의를 지킨 인물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어떠한가. 맹자는 亞聖이신데도 혹 변론을 좋아한다고 의심받으셨고, 한유는 大儒인데도 미쳤다는 명성을 입고서도 풀어버릴 수 없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큰소리로 급박히 부르짖으며 세도를 걱정하고 우리 당의 젊은이들을 간절히 돌아보는가. 위협을 무릅쓰고 강직하게 말하고 낮빛을 부드럽게 하여 친애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보다는 오직 도연명처럼 교유를 끊는 것이 스스로 기뻐하기에 조금 족할 뿐이다. 나는 번암과 교유가 가장 돈독해서 기문을 써달라고 구하니 처음에는 기쁘게 허락하더니 다른 날에 말하기를 “내 글이 거의 완성되었는데 객이 보고 운운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하겠나.”하니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예, 예” 그랬다. 내가 공에게 글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또한 공이 내게 교유를 강요할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또한 각각 그 기뻐하는 바를 따를 뿐이다. 돌아와서 어린 손자에게 말하기를 “내 붓을 가져 오너라, 내가 스스로 내 당의 기문을 쓰겠다.” 하였다.

余少喜翰墨之游 交道頗廣, 貧不知凍餒之可憂 仕不知潦倒之可羞 唯以詡詡微遂爲事 垂四十年. 而耄及之虛名, 古人所忌. 褊性衆謗所集 桑榆匪遠照之景 寒灰無可附之焰 於是客榻常棲塵矣 端居落穆 深有契於曾王父題壁之意 取以名其堂 余平生喜讀杜詩 而初不知此語之可喜喜之, 吁, 何晚也. 今之時 視我曾王父之時 何如也. 今之客 視我曾王父之客 又何如也. 孟子亞聖也 或疑其好辯, 韓愈 大儒也. 被之狂名而莫之解, 余是何人焉 能大聲疾呼憂世教 而眷眷於 吾黨小子也, 與其犯冒強言, 弱色爲親愛所憐憫 唯淵明之息交絕游差足自喜耳. 余與樊巖相交最厚 索其爲記 始欣然許之, 他日曰 吾文垂成 客有見而云云者奈何, 余笑曰 唯唯, 余之不能強公文字 亦猶公之不能強余交游也. 亦各從其所喜而已, 歸語樾孫曰 取吾筆來, 吾自記吾堂.

1791년 尹持忠, 權尙然이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만중은 권일신<sup>57)</sup> 사학의 교주라는 내용의 통문을 돌리고 목인규는 홍낙안에게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홍낙안은 체제공에게 사학을 성도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에 사학을 황건적, 백련교로 부르는 등 극단적인 표현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었다. 正祖는 체제공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는데 진산 사건 관계자를 신문할 때 권일신을 교주로 지목한 목만중 부자도 가서 증인으로 공초를 받게 되었다. 당시의 정황을 강준흠의 주장에 따르면<sup>58)</sup> 체제공이 나이가 많아 외부의 사정을 잘 모르고 정

57) 정조 15년 11월 정조실록기사 참조

58) 姜浚欽, 〈資憲大夫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睦公神道碑銘〉, 『여와집』, 고려대 아연문고본 제11책.

약용은 인척이었고, 이익운은 친밀한 빈객이었으며 채제공의 아들 채홍원도 서학의 설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윤지충, 권상연만을 주벌하고 권일신은 위리안치되고 이승훈은 평택현감에서 면책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하였다. 오히려 홍낙안은 변방의 찰방으로 좌천되고 이기경은 유배를 당했으며 목만중의 아들 목인규도 방축되었다.

한쪽 편의 기록이라 강준흠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강준흠의 글을 통해 대체적으로 진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채제공과 목만중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목만중이 채제공 등 다른 문인들과 완전히 결렬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는 목만중이 채제공 그룹과 교류는 계속 하되 일정정도 거리가 생기면서 서학과 거리를 둔 남인 문사들이 목만중과 채홍리를 중심으로 모이던 시기이다.

채제공 주변의 문인들이 서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진산 사건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이다. 안정복과 이현경도 채제공에게 편지를 보내 경계했었다. 채제공이 이 문제에 대해 내린 해결방안은 바른 학문을 확립시키면 말단은 자연히 바로잡힌다는 것이었다.<sup>59)</sup> 목만중은 변암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서도 교류를 계속해왔고 채제공이 집단의 지도자로 있는 한 불만은 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던 듯 보인다. 1791년 이후에도 목만중은 계속해서 채제공의 집을 드나들었고<sup>60)</sup> 이익운의 형 이정운에게도 시를 보내고<sup>61)</sup> 정약용의 아버지인 정재원에게도 시를 보내었다.<sup>62)</sup> 오대익,<sup>63)</sup> 윤필병과도 교류를 계속하였다. 1796년 그는 두보의 〈存歿絕句〉를 본따 시를 지으며 신광수, 정범조, 丁載遠(荷石), 韓光傳(南居), 兪恒柱(竹坡), 蔡弘履(岐川), 李東遇(眞心齋), 申光河(震澤), 沈璞(梧軒), 尹弼秉(無號菴), 李東郁(蘇巖), 李鼎運(五沙)을 그리워하였다. 사실상 이들이 목만중과 비슷한 연배로서 채제공과 목만

59) 〈請嚴懲西洋邪學仍論洪樂安劄〉, 『樊巖先生集』 권24, 〈請嚴禁西洋學啓〉, 『樊巖先生集』 권31.

60) 〈樊巖宅次題碧韻〉, 『美芹續錄』, 『餘窩先生集』, 1794년작.

61) 〈贈湖西伯李公會〉, 『여와선생집』.

62) 〈晉牧丁器伯有書詩以答之〉, 『美芹續錄』, 『餘窩先生集』, 1791년작.

63) 〈雲巖吳景參步武夷九曲韻 贈賦雲仙九曲見寄求和〉, 『美芹續錄』, 『餘窩先生集』, 1794년작.

중 시사의 핵심 구성원들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목만중과 빈번하게 교류했던 인물들은 채홍리, 조카인 최홍진, 강준흠, 洪仁浩, 이기정, 홍약호, 朴鸞斯, 權侁, 柳光鎮, 洪克浩(稚伯), 이지연, 족숙 목조영, 이정서, 신현록, 채홍운, 이재기 등이었다. 이들은 목만중의 점희당에 모여 시회를 열기도 하고 도성 서쪽 虎班峴에 있는 筆工이 만든 정원으로 놀러가기도 하였다.

시사의 제군들에게 虎邱에서 만나기로 기약하며 편지를 보낸다.  
(東社中諸君約會虎邱)

春來幽事在林泉 봄날의 승경이 산림과 천석에 있으니  
不必瑤臺駕紫烟 신선의 누대에 자줏빛 구름 수레 타고 오를 필요가 없네.  
芳草正堪紉作佩 향기로운 풀은 정히 끈으로 묶어 패옥으로 만들만 하고  
明沙無謝錦爲筵 맑은 모래는 비단으로 만든 자리보다 뒤지지 않네.  
家貧佐饌饒蔬果 집은 가난해도 안주는 채소와 과일이 풍요롭고  
樹密啼禽勝管絃 뾰뾰한 숲에 우는 새는 음악소리보다 낫네.  
笑殺樓遲園裏叟 우습구나 樓遲園의 노인이어  
強將華髮抗尊前 백발에 억지로 술잔을 들고 있는 것이.

필공의 정원 필원은 성곽 서쪽에 있었는데 1798년에 새로 만든 것이다. 산 허리에 조그마한 집이 있고 집 앞에는 조그만 시내가 있었다. 사방이 모두 화초여서 목만중과 문인들은 이를 따라 감상하였다. 〈筆工新築小園於虎班峴 與岐川同遊〉, 〈岐川蔡士述見過 携西園朴鸞斯游筆園〉(1798년작), 〈昨與淡所諸人同游虎邱值雨遽返翌朝賦寄〉, 〈虎邱燈夕酒肴飯蔬人各具一器五七言律人各賦一篇〉(1803년작), 〈不到筆園屢閱歲矣數三者同游〉(1810년작) 등 여러 작품을 볼 때 필공의 정원은 목만중과 문인들이 자주 찾는 시회 장소였다. 이들은 그 밖에도 목만중의 집인 점희당, 필운대에서 시회가 열렸다. 이미 일흔이 넘은 목만중은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아들이나 손자들이 유람한 이야기를 듣고 종복들에게 정원을 손질하게 하는 것이 노년의 일상이었다. 목만중은 그 중에서 파초와 분매를 가장 아꼈는지 겨울철이 되면 파초를 제일 먼저 거두어들이고 매화 화분을 방안으로 들여 놓았다.<sup>64)</sup> 그는 만년(1803년)에 채제공의 집을 지나갔는데, 당시에 이미 채제공은 관직이 추탈되고 후손

들은 영락해서 주인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목만중은 채제공과 함께 시사를 맺고 시를 논하던 40년 세월을 회고하면서 채제공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던 일을 떠올리며 강개한 정을 토로하였다.<sup>65)</sup>

채제공을 중심으로 한 시회가 갖는 의의는 채제공이 이른바 탁남의 후손들까지 포용하면서 남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결속하고 남인이라는 정치 집단이 여러 차례의 환국과 무신란 등 난리 속에서 복인처럼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정치 집단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 이 글은 18세기 후반 채제공과 목만중을 중심으로 한 남인 관각 문인들의 시회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간 연구가 집중된 재야남인에 비해연구가 소홀했던 관각 남인 문인의 문학활동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18세기 후반 남인 문단의 지형을 당시의 실상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4) 〈移梅盆置紙閣之內漫賦〉“雨後天風歲色闌 小梅深屋貯平安 形蟠龍虎根柯老 氣管陰陽戶牖寬 冬暖祇應先臘破 夜閒偏向燈看 百年處世有如此 不信心間行路難”, 『餘窩先生集』 권10, 〈雪後更題蕉葉〉“深深衆木擁茅堂 階畔芭蕉不受霜 苦癖揮毫憐佛院 奇珍貢布憶蠻方 身過翠藻知經歲 性似丹葵愛向陽 多事棲遲園裏叟 每先冬節謹收藏”, 『여와선생집』, 1801년작.

65) 〈過故相宅 宅已三易主矣 馬上口占〉, 『餘窩先生集』, 권8, 1803년작.

## 참고문헌

- 목만중, 『餘窩先生集』, 국립중앙도서관본.  
 목만중, 『餘窩集』, 규장각본.  
 채제공, 『樊巖集』, 한국문집총간 235, 236.  
 신광수, 『石北集』, 『崇文聯芳集』, 서울 탐구당, 1975.  
 신광하, 『震澤文集』, 『崇文聯芳集』, 서울 탐구당, 1975.  
 이용휴, 『탄만집』, 한국문집총간 223.  
 이헌경, 『良翁集』, 한국문집총간 231.  
 정범조, 『海左集』, 한국문집총간 239, 240.  
 안정복, 『순암집』, 한국문집총간 225.  
 정약용, 『여유당전서』, 한국문집총간 281.  
 이종묵, 「번암이 살던 곳」, 『문헌과 해석』 26, 2003.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민족문화연구』 31집, 1998.  
 李能和, 『韓國基督教及外交史』, 신한서림영인본, 1968.  
 달레, 『한국천주교회사』, 한국천주교회사 연구소, 1980.